

국가-자치경찰 신경전 민망한 '뒤끝'

'제주 자치경찰 운영조례안' 어제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주경찰청 기자회견 "도, 일방 추진... 합의도 뒤집어" 자치경찰 반박 입장문 "총 9회에 걸쳐 경찰청과 논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뒤끝'을 보여주고 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 추진팀장(총경)은 25일 제주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회는 결정에 준중할 것"이라면서도 "제주도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오 팀장은 "지난 2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조례안의 쟁점사항들을 합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 합의에 대해 '협의사항 일부(실무협의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향후 시범실시 기간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복지지원대상의 기준을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서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변경 ▷실무협의회 간사직 신설 ▷실무협의회를 부기관장 및 실국장으로 구성 등의 쟁점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이 발표한 입장문을 바로 잡는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조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제주

경찰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졌다"며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경찰청과 논의 절차를 거친 적은 있지만, 상호 합의했거나 합의안을 도출해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국 자치경찰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고,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경찰청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힘을 합쳐 제주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애조로 사망교통사고 '자동차전용도로' 공방

제주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쟁점은 사고가 난 애조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판단할지 여부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65)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전 제주시 애조로 동생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씨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5월 21일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애조로가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는 도로'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주시 소홀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의 유족 측은 애조로가 관련 법령 및 행정상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되지 않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애조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A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은범기자



평생이모자반과 쓰레기로 뒤덮인 해안 25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에 끝없이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와 평생이모자반이 주변 청정환경을 해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 30년 사이 기온 0.9℃ 올랐다

기상청 '기후평년값' 발표... 1980년대 15.8℃ → 2010년대 16.7℃

10년 만에 새로운 '제주 기후평년값'이 나왔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기온과 강수량을 평균한 '기후평년값'을 25일 발표했다. 기후평년값은 10년 주기로 산출되는 것으로, 지난 2011년에 평년값(1981년부터 2010년)이 나온 이후 10년 만이다. 새로운 기후평년값에 따르면 제주

의 연평균 기온은 16.5℃로 이전 평년값보다 0.3℃ 상승했으며, 10년 평균기온으로 보면 1980년대(15.8℃)보다 2010년대(16.7℃)가 0.9℃ 상승했다. 이같은 기온상승은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며 이에 모든 월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연 강수량은 1746.0mm로 이전 평년(1710.3mm)보다 35.7mm 증가했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 강수량은 756.4mm로 연 강수량의 43.3%를 차지했다. 권오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새로운 기후평년값을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평년값은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 나흘만에 코로나 1명 확진

도 "24일 입국한 외국인 접촉자는 적을것으로 예상" 현재 누적확진자 총 618명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던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1시쯤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18)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18명으로 늘었다. 제주지역에선 지난 21일 제주 617번 확진자 발생 이후 24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18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618번은 지난 24일 오후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오후 1시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618번이 입도 직후 곧바로 검체 채취와 격리가 이뤄졌던 만큼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검사에서 확진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30번째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지난해 3월말부터 총 1만962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돈부자·성명불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환대출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꾀어내면 김씨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것이다. 제안을 수락한 이후 김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5분쯤 제주시 모

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3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3억9394만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김씨가 채긴 금액은 1000만원 아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도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 등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여름철새 조사를 겨울에 실시한 제주시"

오동봉공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연합, 부실 의혹 제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오동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며 26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동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동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II급 맹꽁

이 서식이 조사됐기 때문에 맹꽁이 서식현황 제시 ▷사업 부지 내 예기뿔소풍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가 필수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이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결과물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따라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층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사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21년 11월 - 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금종

2-7년생 허균, 팔색, 세미블, 금금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산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